

## 新羅의 東北地方 國境과 그 變遷에 관한 고찰\*

전 덕 재\*\*

1. 머리말
2. 上古期 新羅와 高句麗의 境界
  - 가. 3세기 후반 新羅의 東北境
  - 나. 麻立干時期 新羅와 高句麗의 境界
3. 眞興王代의 領土擴張과 東北境界의 變動
4. 新羅·渤海의 境界와 그 變遷
5. 맺음말

### 1. 머리말

동해안지역은 태백산맥이 해안에 근접하게 평행하고 해안선이 단조로운 관계로 군사적인 침략에 대응하기에 불리한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동해안지역에서

\* 이 논문은 2013년도 단국대학교 교책중점연구기관(동양학연구원)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신라와 고구려의 국경은 변동이 매우 심한 편이었다. 예를 들면 고구려는 한때 포항시 북구 청하면과 그 이북의 경북 동해안지역을 영역으로 편제하여 지배하였고, 삼국시대에 신라는 한때 함흥과 이원 일대까지 進出하여 영역으로 삼기도 하였다. 종래에 동해안지역 지형상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신라 동북 국경을 검토한 연구성과가 여럿 제출되었고<sup>1)</sup>, 삼국통일 이후 발해와 신라의 국경 및 그 변천을 둘러싼 연구성과도 적지 않게 제출된 편이었다.<sup>2)</sup> 이 결과 신라의 동북 국경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는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에 특정 시기 신라의 동북 국경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신라 역사의 전개과정에 따라 동북 국경이 어떻게 변천되었는가를 세밀하게 천착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3세기 후반에서 7세기 중반까지 신라와 고구려가

- 
- 1) 津田左右吉, 『滿鮮歷史地理研究』1<朝鮮歷史地理>, 1913(『津田左右吉全集』제11권, 岩波書店, 1964); 池内宏, 「眞興王の戊子巡境碑と新羅の東北境」, 『古蹟調査特別報告』第6冊, 朝鮮總督府, 1929(『滿鮮史研究』上世第2冊, 吉川弘文館, 1960); 이병도, 「진흥대왕의 위업」,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김현숙, 『고구려의 영역 지배방식 연구』, 모시는 사람들, 2005; 장창은, 『신라 상고기 정치변동과 고구려 관계』, 신서원, 2008; 서영일, 「사료국의 실직국 병합과 동해 해상권의 장악」, 『신라문화』 21, 2003; 장창은, 「3~5세기 고구려-신라 관계의 전쟁사적 추이」, 『고구려연구』 24, 2004; 홍승우, 「4~6세기 신라의 동해안지역 진출과 지방지배 방식」, 『4~6세기 영남 동해안지역의 문화와 사회』, 동북아역사재단, 2009; 김창겸, 「신라의 동북방 진출과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 출항지」, 『사학연구』101, 2011; 강봉룡, 「5세기 이전 신라의 동해안방면 진출과 ‘동해안로」, 『한국고대사연구』 63, 2011; 김창겸, 「고대 안변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검토-북한지역 향토사 정리를 위한 하나의 시도-」, 『민족문화논총』48, 2011; 이경섭, 「고대 동해안지역의 정치적 동향과 우산국」, 『신라문화』39, 2012; 전덕재, 「상고기 신라의 동해안지역 경영」, 『역사문화연구』 45, 2013.
- 2) 松井等, 「渤海國の疆域」, 『滿洲歷史地理』上, (株)丸善, 1940; 이문기, 「통일신라기 북진과 군사적 위상」, 『구국왕중동교수정년기념사학논총』, 1994; 송기호, 「발해의 성쇠와 강역」, 『백산학보』 47, 1996; 조이욱, 「신라와 발해의 국경문제」, 『백산학보』 52, 1999; 김종복, 「남북국의 경계와 상호교섭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 현실』 82, 2011; 赤羽目匡由, 『渤海王國の政治と社會』, 吉川弘文館, 2011.

동해안지역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전개하면서 두 나라의 국경이 자주 바뀌었는데, 종래에 이에 대해서 체계적,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성과는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밖에 牛山城과 牛鳴山城, 고구려와 신라의 경계 및 신라와 발해의 경계에 위치한 泥河, 그리고 泉井郡의 위치를 정확하게 고증하지 않고 논지를 전개하여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본고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존에 신라의 동북 국경과 관련하여 논란이 분분하였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하기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지를 전개하려고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고구려본기의 기록, 그리고 동해안지역의 고고학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상고기에 동해안 지역에서 신라와 고구려 국경이 어떻게 변동되었는가를 고찰할 예정이다. 이어 3장에서는 6세기 전반부터 7세기 중반까지 신라 동북 국경이 어떻게 변동되었는가를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전하는 卅와 6停 관련 기사 및 진흥왕순수비 마운령비와 황초령비를 세밀하게 분석, 정리하여 검토한 다음, 계속해서 4장에서는 통일 이후 신라의 동북 국경이 어디였고, 발해 팽창 이후 신라와 발해가 어디를 경계로 대치하였는가를 『삼국사기』와 중국 및 일본측의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점검할 것이다. 본고에서 부족한 점은 추후에 보완할 것을 약속하며, 많은 질정을 바란다.

## 2. 上古期 新羅와 高句麗의 境界

### 가. 3세기 후반 新羅의 東北境

『三國志』 魏書 東夷傳 濊條에 濊는 남쪽으로 辰韓과 접하였다고 전한다. 3세기 중반에 동예와 진한이 동해안에서 서로 경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辰韓 小國 가운데 勤耆國을 포함시 남구 연일읍(옛 영일군)<sup>3)</sup>, 優由國(優中國)을 경북 울진에 위치한 것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sup>4)</sup> 그러나 이에 대하여 異見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기국과 우유국이 반드시 동해안지역에 위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sup>5)</sup>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흥곡리 마조마을(옛 마조리)에서 ‘晉牽善穢伯長’이 새겨진 銅印이 발견되었다. 3세기 후반에 경주 근처인 포항시 북구 신광면 일대까지 穢(濊)族이 거주하였음을 알려주는 유물이다. 『三國志』 魏書 東夷傳 濊條에 247년(正始 8)에 濊가 魏에 朝貢을 바치자, 魏는 不耐侯를 不耐濊王으로 封하였고, 그는 계절마다 낙랑군에 이르러 朝謁하였다고 전한다. 『三國志』 魏書에 ‘景元 2년(261) 가을 7월에 낙랑의 外夷인 韓·濊·貊이 각각 그 무리를 이끌고 와서 朝貢하였다’고 전한다.<sup>6)</sup> 260년대까지 동해안지역의 예족이 낙랑군의 통제를 받았음을 알려준다. 낙랑군 不耐縣은 현재 북한의 강원도 안변을 중심으로 원산 내지 통천군에 걸쳐 있었다고 추정되므로<sup>7)</sup> 3세기 후반 예족의 핵심 세력은 원산만 일원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이병도, 「삼한의 제소국문제」,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276쪽.

4) 천관우, 「진·변한 제국의 위치 시론」, 『백산학보』 20, 1976; 『가야사연구』, 일조각, 1991, 83~85쪽.

5) 이병도, 앞의 논문, 1976, 276쪽에서 우유국을, 천관우, 위의 책, 73~75쪽에서 근기국을 각기 경북 청도에 위치한 소국으로 추정하였다.

6) 『三國志』 권4 魏書 陳留王奐紀, “景元二年 秋七月 樂浪外夷韓穢貊 各率其屬來朝貢”.

7) 이병도, 「臨屯郡考」,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201쪽.

『삼국지』 위서 동이전 예조에 동예가 漢末(後漢末)에 고구려에 복속되었다고 전하므로 3세기 후반에 원산만 일원에 거주한 예족의 핵심세력은 고구려에 복속된 상태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고구려에 복속된 동예의 범위를 포항시 북구 신평면 일대까지 규정할 수 있을가가 문제로 제기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파사이사금 23년에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悉直國의 왕이 신라, 즉 斯盧國에 항복하였고, 파사이사금 25년에 실직국이 반란을 일으키자, 신라에서 군사를 보내 반란을 평정한 다음, 그 남은 무리들을 남쪽의 변방으로 옮겼다고 전한다. 파사이사금 23년은 기년상으로 102년에 해당하나, 신라본기 초기기록의 기년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직국이 2세기 초반에 사로국에 복속되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尼師今時期 신라본기의 기록은 4세기 후반 이전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위의 기록은 4세기 후반 이전에 실직국이 사로국에 복속되었음을 시사해주는 자료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면 사로국(신라)이 구체적으로 실직국을 服屬시킨 시기를 언제까지 소급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분왕) 4년 7월에 倭人이 침입해 왔으므로 (昔)于老가 沙道에서 추격하여 싸웠는데, 바람을 따라 불을 놓아서 전함을 불태우니, 적이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 (침해왕) 7년 癸酉에 왜국의 사신 葛那古가 客館에 와 있었는데, 우로가 그를 접대하였다. 손님과 더불어 희롱하여 말하기를, ‘조만간에 너희 왕을 소금을 만드는 노비(鹽奴)로 만들고, 왕비를 밥을 짓는 여자(爨婦)로 삼겠다’고 하였다. 왜왕이 이 말을 듣고 노하여 장군 于道朱君을 보내 우리(신라)를 치니, 대왕이 于柚村으로 出居하였다. 우로가 말하기를, ‘지금 이 환난은 내가 말을 신중하게 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으니,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고, 마침내 왜군에게로 가서 이르기, ‘전일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었을

뿐이었다. 어찌 군사를 일으켜 이곳에 이를 줄 생각이나 했겠는가라고 하였다. 왜인이 대답하지 않고 그를 잡아서 나무를 쌓아 그 위에 엮어놓고 불태워 죽인 다음 돌아갔다(『三國史記』 列傳第5 昔于老).

석우로가 沙道에서 왜군을 격퇴한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제 2 조분이사금 4년 가을 7월조에도 보인다. 조분이사금 4년은 기년상으로 233년에 해당하나 이것 역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석우로는 흘해이사금의 아버지인데, 『삼국사기』 석우로열전에 우로가 사망할 때에 아들인 흘해는 어려서 걷지도 못하였다고 전한다. 이러한 사실과 흘해의 재위 연대가 310년에서 356년까지였다는 점을 두루 감안하건대, 석우로가 활동한 연대는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반 사이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sup>8)</sup> 사도성은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에 위치한 沙冬院으로 비정할 수 있다.<sup>9)</sup> 한편 于柚村은 종래에 울진군 울진읍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널리 수용되었으나<sup>10)</sup>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영덕군 영해면의 옛지명이 于尸郡인데, 于尸에서 ‘尸’는 ‘르’ 또는 ‘스(人)’ 받침을 의미하므로 ‘于尸’는 ‘울’ 또는 ‘웃(웃)’으로 독음할 수 있다. 한편 진흥왕순수비 창녕비에 于抽郡이 나오는데, 于抽와 于柚는 相通한다. 于柚는 ‘우추’뿐만 아니라 ‘웃’으로도 讀音할 수 있으므로 결국 ‘于尸(울 또는 웃)’와 음운상 서로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사도성을 沙冬院과 연결시키고, 于柚村을 영덕군 영해면으로 비정할 수 있다면, 위의 기록은 석우로가 활동한 3세기 후반 무렵에 사로국, 즉 신라가 동해안으로 영덕군 영해면지역까지 진출하였음을 알려주는 사료로 활용할

8) 전덕재, 「勿稽子の 避隱과 그에 대한 평가」,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31(명예보다 求道를 택한 신라인), 2010, 235~238쪽.

9)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7, 29쪽; 전덕재, 앞의 논문, 2013, 15~16쪽.

10) 前間恭作, 「新羅王の世次と其の名について」, 『東洋學報』 15-2, 1925; 『半島上代の人文』, 松浦書店, 1938에서 처음 우유촌을 울진군 울진읍으로 비정한 이래, 여러 학자들이 이를 지지하였다.

수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제1 지마이사금 14년 가을 7월조에 말갈이 大嶺柵을 습격하고 泥河를 지나 신라를 침략하였다는 내용이 전하고, 또한 일성이사금 4년 2월조에는 말갈이 변방에 쳐들어와 長嶺의 木柵 5개를 불살랐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밖에 일성이사금 7년 봄 2월조에 말갈의 침략에 대비하여 長嶺에 목책을 세웠고, 신라본기제2 아달라이사금 4년 3월조에 왕이 長嶺鎭에 巡幸하여 거기에 주둔한 군졸을 위로하고 각자에게 군복을 내려 주었다고 전한다. 여기서 말갈은 東濊를 지칭하고<sup>11)</sup>, 大嶺은 大關嶺, 長嶺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옛 도암면) 병내리와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를 잇는 진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sup>12)</sup>, 뒤에서 자세하게 살필 예정이지만, 泥河는 강릉시 남쪽에 위치한 南大川(옛 城南川)을 가리킨다고 추정되며, 鎭은 군대가 주둔한 군사기지를 이른다. 따라서 위의 기록들을 근거로 하여 신라가 4세기 후반 이전 어느 시기에 대관령이 위치한 강릉을 경계로 하여 말갈(동예)과 대치하였다고 유추할 수 있다. 아마도 경북 영덕군 영해면까지 진출한 3세기 후반 무렵을 전후한 시기에 사로국이 실직국을 복속시킨 다음, 강릉지역까지 진출하여 대관령 또는 진고개에 木柵을 설치하고 거기에 군사를 주둔시키면서 말갈, 즉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던 동예와 대치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일 것이다. 당시 사로국은 동해안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에 城을 쌓거나 鎭을 설치한 다음, 거기에 군사를 주둔시켜 그 근처에 위치한 소국과 음락을 간접적으로 지배, 통제하였다고 알려졌다.<sup>13)</sup>

11) 노태돈,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고구려 관계 기사 검토』, 『경주사학』 16, 1997, 83~84쪽.

12) 진고개는 비만 오면 땅이 질어지는 특성 때문에 泥峴이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고개가 길어 長峴으로 표기하기도 한다(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 <강원편>, 1967, 489쪽). 본래 진고개(長峴, 長嶺)라고 불렀다가 후에 방언의 구개음화를 걸쳐 진고개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

13) 4세기 이전 사로국의 동해안지역에 대한 지배, 통제방식과 관련하여 전덕재, 앞의

## 나. 麻立干時期 新羅와 高句麗의 경계

앞 절에서 3세기 후반에 신라의 東北境이 강릉 근처였음을 살펴 보았다. 그러면 3세기 후반 이후 동해안지역에서 신라의 北境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을까가 궁금하다. 3세기 후반에서 6세기 사이에 동해안지역에서 신라의 北境이 어디였는가를 알려주는 자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I-① 말갈이 북쪽 변경을 침범하였으므로 군사를 내어 그들을 悉直의 들판에서 크게 쳐부수었다(『삼국사기』 신라본기제3 나물이사금 40년 가을 8월).
- I-② 북쪽 변방 何瑟羅에 가뭄이 들고 蝗虫의 재해가 있어 흉년이 들었으며, 백성들이 굶주렸다. (하슬라의) 罪囚를 살피서 사면하고, 1년의 租와 調를 면제해 주었다(上同, 나물이사금 42년 가을 7월).
- II-① 고구려의 변방 將帥가 悉直의 들에서 사냥하는 것을 何瑟羅城主 三直이 군사를 내어 불의에 공격하여 그를 죽였다. 고구려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사신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대왕과 우호를 닦는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었는데, 지금 군사를 내어 우리의 변방 장수를 죽이니, 이는 어찌 의리 있는 일이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군사를 일으켜 우리의 서쪽 변경을 침입하였다. 왕이 겸허한 말로 사과하자, 물러갔다(上同, 눌지마립간 34년 가을 7월).
- II-②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북쪽 변경 悉直城을 습격하였다. 가을 9월에 何瑟羅 사람으로서 15세 이상인 자를 징발하여 泥河(혹은 泥川)에 城을 쌓았다(上同, 자비마립간 11년 봄).
- III-① (왕이) 比列城에 행차하여 군사들을 위로하고 솜을 넣어 만든 군복을 내려주었다. 3월에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북쪽 변경을 쳐들어와 狐鳴城 등 7성을 빼앗고, 또 彌秩夫에 進軍하였다. 우리 군사가 백제·가야의 구원병과 함께 여러 길로 나누어서 그들을 막았다. 적이 패하여 물러가므로 泥河의 서쪽에서 공격하여 깨뜨렸는데, 천여 명을 목 베었다(上同, 소지마립간 3년 봄 2월).

Ⅲ-② 고구려가 牛山城을 공격해 왔다. 장군 實竹이 나아가 泥河 가  
에서 공격하여 깨뜨렸다(上同, 소지마립간 18년 가을 7월)

Ⅲ-③ 고구려가 牛山城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上同, 소지마립간 19년  
8월).

I-②는 나물이사금 42년(397)에 신라의 동북 국경이 오늘날  
강릉시에 해당하는 何瑟羅였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나물이사금  
40년(395)에 신라가 말갈을 실직의 들판에서 물리친 것으로 보아,  
당시 신라의 北境은 실직 또는 하슬라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제2 나해이사금 8년 겨울 10월조에 말갈이 신  
라를 침략하였다고 전하고, 또 조분이사금 16년 겨울 10월조에 고  
구려가 북쪽 변경을 침략하였으므로 우로가 군사를 이끌고나가 쳤  
으나 이기지 못하고 물러나 馬頭柵을 지켰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밖  
에 조분이사금 16년 이후부터 나물이사금 40년까지의 신라본기 기  
록에서 말갈 또는 고구려가 동해안지역에서 신라를 침략하였음을  
전하는 史料를 찾을 수 없다. 395년 이전 시기 신라의 北境과 관련  
하여 馬頭柵의 위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그것의 위치를  
정확하게 고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3세기 후반부터 395년 사이 동  
해안지역 신라의 北境을 정확하게 考究하기 곤란하다. 다만 3세기  
후반 무렵 신라의 북경이 대관령이 위치한 강릉이었고 390년대에  
그것이 실직 또는 하슬라였음을 미루어보건대, 3세기 후반에서 390  
년대 사이에 동해안지역 신라의 北境은 실직 또는 하슬라였을 가능  
성이 높지 않을까 여겨진다.

Ⅱ-①에서 보듯이 눌지마립간 34년(450) 고구려 변방의 장수가  
悉直의 들에서 사냥하고, 何瑟羅 城主가 고구려 장수를 살해한 사실  
을 통하여 450년 무렵 신라와 고구려의 경계가 何瑟羅 또는 悉直  
이었음을 인지할 수 있다. Ⅱ-②에 자비마립간 11년(468) 봄에  
신라의 북쪽 변경이 悉直城이고, 그해 가을 9월에 하슬라 사람을

동원하여 泥河에 성을 쌓았다고 전한다. 468년 무렵 신라의 동북경이 실직 또는 하슬라였음을 알려주는 자료로서 주목된다. 5세기 후반에 신라가 하슬라, 즉 강릉지역의 정치세력을 지배, 통제하였음을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5세기 3/4분기 이후에도 여전히 강릉지역에서 수혈식석곽묘가 주요 분묘로 조성되었지만, 그러나 목곽묘와 적석목곽묘, 횡구식석실묘 등 신라계의 분묘도 함께 축조되었으며, 여기에서 경주 양식의 신라계 토기뿐만 아니라 창녕과 의성 양식의 토기, 다양한 신라계 위세 품이 출토되었다고 한다.<sup>14)</sup> 결국 Ⅱ-①, ②의 기록 및 강릉지역의 고고학 발굴 현황을 통하여 450년 무렵부터 468년까지 신라의 北境이 悉直 또는 何瑟羅였음을 살필 수 있다.

소지마립간 2년(480) 11월에 말갈이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략하였는데, 당시 그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가를 밝히지 않았다. 468년 이후 신라의 북쪽 경계에 변동이 있었음을 시사해주는 자료가 바로 Ⅲ-①이다. 소지마립간 3년(481) 2월에 북한강의 강원도 안변에 해당하는 比列城(比列忽)에 신라의 군대가 주둔한 것에서 당시 신라가 안변지역까지 진출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475년에 고구려가 백제 漢城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는데, 이때 신라는 백제를 도와주기 위하여 군사 1만을 파견하고, 왕궁을 월성에서 명활성으로 옮겼다. 이밖에 신라가 고구려의 남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알려주는 자료는 전하지 않는다. 다만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누락없이 481년 2월에 소지마립간이 비열성에 순행하여 거기에 주둔한 군사들에게 군복을 하사하였다는 기사가 전할 뿐이다. 480년 무렵 고구려가 남진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신라가 안변의 비열성까지 진출하였다고 상정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14) 이한상, 「동해안지역의 5~6세기대 신라분묘 확산양상」, 『영남고고학』 32, 2003; 심현용, 「고고자료로 본 5~6세기 신라의 강릉지역 지배방식」, 『문화재』 42권 3호, 2009.

그렇다고 하여 이 기사를 무조건 불신하는 것도 무엇인가 석연치 않다. 소지마립간이 비열성에 순행한 바로 그 다음 달에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신라의 북쪽 변경을 쳐들어와 狐鳴城 등 7성을 빼앗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으로 비정되는 彌秩夫까지 進軍하였음을 감안한다면, 신라의 비열성 진출이 단지 허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81년 3월 고구려의 신라 공격은 신라의 비열성 진출에 대한 반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sup>15)</sup>

475년 고구려가 백제의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킬 무렵, 勿吉이 백제와 수로를 통해 연결하여 고구려를 협공하려고 하였고, 北魏 獻文帝와 고구려 宗室 여자와의 혼인 문제를 둘러싸고 북위와 고구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고구려는 한성을 함락시킨 후에 계속 남진하지 못하고 군대를 한강 이북으로 철수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sup>16)</sup> 필자는 고구려의 서부 국경지역에서 고구려와 물길 및 북위와의 긴장관계가 고조된 틈을 타서 신라가 475년에서 481년 사이에 비열성까지 진출하고, 거기에 군사를 주둔시키자, 이에 고구려가 481년 3월에 동해안지역에서 신라를 대대적으로 공격하였다가 결국 백제와 대가야, 신라의 연합군에게 패배한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종래에 Ⅱ-②와 Ⅲ-①, ②의 기록에 보이는 泥河의 위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였다. 현재 泥河를 태백산맥에서 강릉 방향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비정하는 견해와<sup>17)</sup> 정선 방면에 위치한 남한강

15) 김현숙, 앞의 책, 2005, 237~242쪽에서 신라가 450~480년 사이에 고구려에게 넘겨준 명주지역의 故土를 상당부분 회복한 다음, 안변지역까지 북상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16) 노태돈, 「고구려의 한강지역 병탄과 그 지배 양태」, 『향토서술』 66, 2005; 『한국 고대사의 이론과 쟁점』, 집문당, 2009, 190~194쪽.

17) 정약용이 泥河를 강릉 북쪽에 위치한 泥川水라고 언급하였고, 후대에 그것이 泥峴(진고개)에서 발원하는 連谷川임이 밝혀졌다. 여러 학자들이 강릉시 사천면과 연곡면의 분수계를 이루고 있는 연곡천을 니하로 비정하는 견해에 동조하였다. 그리고 일부는 대관령에서 발원하는 城南川(지금의 남대천)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상류의 하천으로 보는 견해로<sup>18)</sup> 나뉘고 있다. 泥河의 위치 고증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갈이 북쪽 변경에 대거 침입하고 관리와 백성을 노략질하였다. 가을 7월에 또 大嶺柵을 습격하고 泥河를 지났으므로 왕이 백제에게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하였다. 백제가 다섯 명의 장군을 보내 돕자, 적병이 이를 듣고서 물러갔다(『삼국사기』 신라본기제1 지마이사금 14년 봄 정월).

『삼국사기』 백제본기제1 기루왕 49년조에는 신라가 말갈에게 침략을 당하자, 백제에게 편지를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백제왕이 5장군을 보내 구원하게 하였다라고 전한다. 지마이사금 14년과 기루왕 49년은 기년상 125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사금시기 기록의 기년을 그대로 신뢰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말갈이 신라를 침략한 시기를 2세기 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세기 후반에 신라의 北境이 대관령 근처였음을 주목하건대,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후반 사이에 말갈이 대관령에 설치한 木柵을 습격한 다음, 곧이어 泥河를 넘어 신라를 공격하였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만약에 泥河를 남한강 상류로 비정한다면, 안변 일대에 거주하던

18) 津田左右吉, 『好太王征服地域考』 『滿鮮歷史地理研究』1(朝鮮歷史地理), 1913; 『津田左右吉全集』 제11권, 岩波書店, 1964, 57~59쪽에서 처음으로 니하를 정선 방면의 남한강 상류로 비정한 이래, 여러 학자들이 이 견해를 지지하였다. 니하의 위치를 둘러싼 견해에 대해서는 홍영호, 『『삼국사기』 所載 泥河의 위치 비정』 『한국사연구』 150, 2010, 45~60쪽이 참조된다. 참고로 니하를 남한강 상류로 이해하는 학자들은 481년에 고구려가 동해안 방면이 아니라 정선, 임계 등 강원도 영서지역에서 태백산맥을 넘어 동해안지역으로 진격한 것으로 이해한다(박성현, 『신라의 거점성 축조와 지방제도의 정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09~111쪽). 한편 김현숙, 앞의 책, 2005, 239쪽에서 481년에 고구려군은 순흥, 부석, 봉화, 예안 등지에서 출발하여 임하-진보-청송-영덕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통해 동해안지역으로 진격하였다고 이해하기도 하였다.

말갈, 즉 동예가 大嶺柵을 공격하고, 이어 대관령을 넘어 정선 방면의 남한강 상류를 지나 신라를 공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주지하듯이 신라는 자비마립간대 이후에 소백산맥에 집중적으로 산성을 축조하여 고구려의 南進에 대항하였던 바, 4세기 후반 이전의 이사금 시기에 신라가 남한강 상류의 강원도지역까지 진출하였다고 상정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신라가 소백산맥을 넘어 충주지역을 차지하고, 다시 거기에서 남한강 상류 방면으로 진출한 것은 6세기 중반 진흥왕대로 봄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의 기사는 3세기 후반 무렵에 신라가 말갈, 즉 동예의 침략에 대비해 대관령에 목책을 설치하였고, 그때부터 4세기 후반 사이에 동예가 大嶺柵을 공격한 다음, 이어 동해안 방면에 위치한 泥河를 지나 신라를 공격하자, 백제군이 신라를 도와주려고 출동하였으며, 이에 동예가 니하를 건너 다시 안변 방면으로 물러간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이다.

말갈이 大嶺柵, 즉 대관령에 설치한 목책을 습격한 다음, 泥河를 지나 신라를 공격하였다면, 자연히 泥河는 大嶺(大關嶺)의 남쪽에 위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종래에 泥河를 泥峴에서 발원한 連谷川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였지만, 이것은 대관령 북쪽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니하로 보기 어렵다. 대관령 남쪽에 위치한 강릉의 대표적인 하천이 바로 대관령에서 발원하는 南大川(옛 城南川)이다.<sup>19)</sup> 최근에 남대천 북쪽의 강문동 현대호텔 신축 부지에서 둘레가 1km인 5~6세기 삼국시대 토성이 발견되었는데<sup>20)</sup>, 468년(자비마립간 11)에

1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강원도 강릉도호부 산천조에 ‘城南川은 府城 남쪽 1백 보에 있으며, 물 근원이 대관령에서 나온다. 여러 골짜기 물과 합류하여 松嶽淵·廣濟淵이 되고, 동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고 전한다.

20) 국강고고학연구소, 「강릉 경포대 현대호텔 신축부지내 유적(삼국시대 신라토성)」, 현장설명회 자료, 2012.8.30.; 국강고고학연구소, 「강릉 경포대 현대호텔 신축부지내 유적(삼국시대 신라토성)」, 현장설명회 자료, 2013.2.15.; 홍영호, 「신라의 동해안 연안항로와 하슬라-강릉 경포호 강문동 신라 토성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신라가 하슬라인을 징발하여 泥河에 城을 쌓았던 것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한다. 남대천이 대관령 남쪽에 위치한 점, 남대천 북쪽에 위치한 강문동 신라 토성의 축조 시기가 근처의 초당동과 안현동 분묘유적 등 주변 유적의 조영 시기와 일치하는 점, 468년에 하슬라인을 징발하여 니하에 성을 쌓은 점 등을 두루 감안하건대, 니하는 남대천으로 비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인다.<sup>21)</sup> 이러한 추정에 잘못이 없다면, 481년에 고구려군은 신라와 백제, 대가야 연합군에 쫓겨 강릉의 남대천 근처로 후퇴하였다가 결국 그곳에서 크게 연합군에게 격파된 셈이 된다. 이에서 고구려가 481년 3월에 말갈과 함께 연합하여 비열성을 먼저 공격하여 함락시킨 다음, 이어 계속해서 狐鳴城 등 7성을 빼앗고, 남쪽으로 彌秩夫까지 진격하였다는 추론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고구려본기에서 489년(소지마립간 11; 장수왕 77) 9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갑자기 쳐들어와 戈峴에 이르렀고, 10월에 狐山城을 쳐서 함락시켰다고 전한다. 그러나 戈峴, 狐山城의 위치를 정확하게 고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489년에 신라와 고구려가 동해안 방면에서 전쟁을 치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490년대 신라와 고구려의 경계를 짐작케 해주는 자료가 바로 Ⅲ-②, ③이다. 泥河를 남한강 상류로 비정하는 연구자들은 牛山城을 보은 혹은 충주 방면, 또는 충주지역에 위치한 성으로 비정하였다.<sup>22)</sup> 그러나 泥河는 강릉의 남대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牛山城은 동해안지역에 위치한 성으로 비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Ⅲ-②에 소지마립간 18년(496) 7월에 고구려군이 牛山城을 공격하여

95, 2013.

21) 종래에 이병도, 앞의 책, 1977, 19쪽에서 대령책을 대관령에 위치한 柵門으로, 니하를 강릉의 성남천(남대천)이라고 주장하여 참고된다.

22) 津田左右吉, 「長壽王征服地域考」, 『滿鮮歷史地理研究』1(朝鮮歷史地理), 1913; 『津田左右吉全集』 제11권, 岩波書店, 1964, 71쪽에서는 牛山城을 충주·보은 방면, 박성현, 앞의 논문, 2010, 109~111쪽에서는 충주지역에 위치한 성으로 비정하였다.

함락시켰다는 내용은 전하지 않고, 다만 泥河 가에서 신라군이 고구려군을 공격하여 깨뜨렸다는 사실만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전후 맥락을 찬찬히 살펴보면 고구려군이 우산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니하까지 진출하였다가 신라군의 반격을 받아 패배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서 우산성은 니하 이북에 위치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 우산성의 위치와 관련하여 강원도 통천군의 옛 이름이 金壤郡 또는 金腦였음이 주목된다.<sup>23)</sup>

‘壤’은 ‘奴’ 또는 ‘那’와 상통한다.<sup>24)</sup> 한편 『삼국사기』 열전제7 素那條에서 素那를 또는 金川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서기』에서 김해의 金官國을 須那羅 또는 素奈羅라고도 불렀다.<sup>25)</sup> 이밖에 『삼국유사』 권제3 흥법제3 阿道基羅條에 金橋를 세간에서는 松橋라고 잘못 부르고 있다고 전한다. ‘솔(소)다리’로 독음할 수 있는 松橋는 바로 ‘쇠다리(金橋)’ 또는 ‘소다리’를 訓借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러 사례를 통하여 신라에서 ‘金’을 ‘소(쇠, 수)’로 독음하였음을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金壤과 金腦는 ‘소내(소노)’의 借字 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삼국사기』 잡지제6 지리4 고구려조에 牛岑郡을 또는 首知衣, 牛首州를 또는 首次若이라고도 불렀다고 전한다. ‘牛’를 ‘首’로 借字 표기하였음을 시사해준다. 『鷄林類事』에서 ‘牛日燒’라고 하였고, 『훈몽자회』에서 牛의 훈이 ‘쇼’라고 하였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牛’의 訓이 ‘소’ 또는 ‘쇼’였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牛山’은 ‘소(수)산’ 또는 ‘쇼산’으로 독음할 수 있는데, 경덕왕대에 押梁(押督)郡을 獐山郡으로, 發羅郡을 錦山郡으로 개칭한 점을 미루어보건대, ‘소내(金腦)’와

23) 『삼국사기』 잡지제4 지리2 명주조에서 金壤郡이 본래 고구려 休壤郡이었고, 잡지제6 지리4 고구려 하슬라주조에서 休壤郡은 또는 金腦라고도 하였다고 전한다.

24) 노태돈,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9쪽.

25) 須那羅는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23년 夏4月 是月條, 素奈羅는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8년 是歲條에 보인다.

‘소산(牛山)’은 음운상으로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 곤란할 것이다.<sup>26)</sup> 언어학적인 방법론을 바탕으로 우산성의 위치를 고증하는 것에 많은 무리가 따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약간 주저되는 면이 없지 않으나 우산성이 니하로 추정되는 남대천 북쪽에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신라가 480년대에 比列城까지 진출하였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건대, 우산성을 金壤郡(金腦郡)과 연결시키는 것이 결코 황당무계한 주장만은 아닐 것이다. 이에 필자는 대담하게 牛山城을 金壤郡으로 비정하는 견해를 제기해두고자 한다.<sup>27)</sup>

이처럼 牛山城을 金壤郡으로 비정할 수 있다면, Ⅲ-③의 기록은 소지마립간 19년(497)에 고구려가 우산성(강원도 통천)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후에 동해안 방면으로 南進하였음을 시사해주는 자료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시에 고구려는 어디까지 남진하였을까?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지증왕 5년(504) 가을 9월에 인부를 징발하여 波里城, 彌實城, 珍德城, 骨火城 등 12성을 쌓았고, 그 다음 해 2월에 悉直州를 설치하고 異斯夫를 軍主로 삼았다고 전한다. 파리성은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미실성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으로, 골화성은 경북 영천시 완산동으로 비정된다. 진흥왕순수비 창녕비에 上州와 下州가 보인다. 이밖에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553년(진흥왕 14)에 한강 유역에 新州를 설치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550년대에 신라는 전국을 上州와 下州, 新州로 구분하여 통치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505년 2월에 悉直州를 설치

26) 押梁에서 ‘梁’은 들이나 들판을 가리키는 ‘들(돌 또는 달)’의 借字이고, 發羅에서 ‘羅’ 역시 지명 어미 ‘那’와 통한다. 경덕왕대에 押梁을 獐山, 發羅를 鎬山으로 개칭한 것에서 那(奴, 壤, 腦)와 山이 서로 통할 수 있는 지명 어미였음을 인지할 수 있다.

27)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540년(성왕 18) 9월에 백제 聖王이 장군 燕會에게 고구려의 牛山城을 공격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540년 무렵 백제와 고구려의 경계가 태안반도에서 충남 천안시 직산면을 연결하는 선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백제가 공격한 고구려의 우산성은 천안시 직산면이나 충북 진천군 또는 옛 충남 연기군 전의면에 위치한 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하였다는 위의 기록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때에 軍主라는 職名을 지닌 異斯夫를 悉直에 파견한 것만은 부인하기 힘들다. 당시 군주는 지방에 주둔한 6부인으로 구성된 정군단, 즉 悉直停을 지휘하는 사령관의 성격을 지녔다고 이해되고 있다.<sup>28)</sup> 따라서 실직주 설치 기사는 505년(지증왕 6) 2월에 실직에 주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6부인 군대가 실직지역에 常時 주둔하고, 그 군단을 지휘하는 사령관, 즉 군주로서 이사부를 임명한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함이 옳다고 보인다.

504년에 삼척시 원덕읍으로 비정되는 波里城을 쌓고, 그 다음해에 실직지역에 6부인으로 구성된 悉直停을 설치한 다음, 그 사령관으로 軍主를 파견한 것으로 보아 505년 무렵에 실직지역이 신라의 영역으로 편제되었음이 확실시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지증왕 13년(512) 6월에 이사부가 하슬라(주)군주로서 우산국(울릉도)을 공격하여 신라에 복속시켰다고 전하고, 법흥왕 11년(524)에 건립된 울진봉평신라비에 悉支軍主가 나온다. 이에서 처음 悉直에 위치하였던 停軍團이 512년 이전 어느 시기에 何瑟羅로 옮겨졌고, 다시 524년 이전 어느 시기에 悉直으로 옮겨졌음을 살필 수 있다. 505년에서 524년 사이에 정군단이 실직에서 하슬라로, 다시 하슬라에서 실직으로 移置된 사실을 주목하건대, 6세기 초반 신라의 북쪽 경계는 실직 또는 하슬라였음이 분명한 듯하다. 이에 따르면, 497년에 고구려가 우산성을 함락시킨 후에 실직 또는 하슬라 근처까지 남진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상에서 450년에서 468년까지 신라의 北境이 悉直 또는 何瑟羅였다가 475년과 481년 사이에 신라가 안변의 比列城까지 북진하였고, 그후 497년에 다시 고구려가 동해안방면으로 南進하여 실직 또는 하슬라를 경계로 신라와 고구려가 대치하였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28) 전덕재, 「신라 중고기 주의 성격 변화와 군주」, 『역사와 현실』 40, 2001, 80쪽.

여기서 상고기 신라와 고구려의 경계와 관련하여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삼국사기』 잡지제4 지리2 명주조에서 삼척 이남에 위치한 군현, 즉 野城郡(영덕군 영덕읍), 有鄰郡(영덕군 영해면) 및 蔚珍郡과 그 領縣들이 본래 고구려의 군 또는 현으로 전한다는 점이다. 종래에 일부 학자는 경북 동해안지역에 위치한 군·현이 본래 고구려의 영역에 속하였다는 지리지의 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sup>29)</sup>, 野城郡의 옛 이름이 也尸忽이었다는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힘들다. 주지하듯이 ‘忽’은 고구려계 지명 어미로서 널리 쓰인 것인 바, 也尸忽이란 지명을 통해서 영덕 지역이 상당 기간 동안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음을 유추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북 동해안지역이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제되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나물이사금 42년(397)과 눌지마립간 34년(450) 사이에 신라의 北境이 실직 또는 하슬라였다는 기록이 전하지 않는 사실, 392년에 신라 나물왕은 고구려에 實聖을 볼모로 보내 고구려의 복속국을 자처하였고, 399년에 왜군이 신라를 침략하자, 나물왕의 요청으로 400년에 고구려 5만의 군대가 신라로 나아가 왜군을 물리친 사실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래에 이러한 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400년 무렵에 고구려가 경북 동해안지역을 영역으로 편제하여 지배하였다가 450년대에 신라가 다시 그곳을 되찾았다고 이해한 견해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sup>30)</sup> 이에 관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자세하게 논증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의 언급은 자세하도록 하겠다.

29) 강중훈, 「5세기 후반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선」, 『한국 고대 사국의 경계선』, 서경문화사, 2008.

30) 김현숙, 앞의 책, 2005, 211~212쪽 및 232~242쪽; 주보돈, 「울진봉평리신라비와 신라의 동해안 경영」, 『울진봉평리신라비와 한국고대금석문』, 울진군·한국고대사학회, 2011, 107~108쪽; 전덕재, 앞의 논문, 2013, 5~14쪽.

### 3. 眞興王代의 領土擴張과 東北境界의 변동

종래에 신라가 6세기 전반에 동해안지역에 위치한 소국이나 읍락을 행정촌으로 재편하고, 거기에 道使와 같은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 지배를 실현하였다고 이해하였다.<sup>31)</sup> 앞에서 당시 신라의 동북 변경은 실직 또는 하슬라 근처였음을 살폈는데, 그 중심 연대가 6세기 1/4분기로 알려진 신라토성이 최근에 강릉시 경포호 강문동에서 발견된 점<sup>32)</sup> 이와 관련하여 참조된다.

그 후 신라 동북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신라본기제4 진흥왕 17년(556) 가을 7월조에 비열홀주를 설치하고, 沙飡 成宗을 군주로 삼았다고 전하는 점이 주목을 끈다. 이 무렵 신라에는 上州와 下州, 新州만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 기사를 비열홀주 설치 기사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중고기 기록에 전하는 州의 置廢記事는 정군단의 치폐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33)</sup> 이에 따르면, 이 기사는 신라가 556년(진흥왕 17) 7월에 6부인으로 구성된 정군단을 비열홀에 설치하고, 그 사령관, 즉 軍主로서 사찬 성종을 임명한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524년에 정군단은 실직에 주둔하고 있다. 그 이후 하슬라지역으로 그것을 다시 移置시켰다는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524년 이전 어느 시기에 정군단의 주둔지를 하슬라에서 실직으로 옮겼음을 알려주는 기록도 전하지 않은 점을 참조하건대, 524년 이후에 정군단의 주둔지를 실직에서 하슬라로 옮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르면, 556년 7월 비열홀주의

31) 동해안지역을 신라의 영역으로 편제하는 과정을 다룬 최근의 연구로서 전덕재, 위의 논문을 들 수 있다.

32) 홍영호, 앞의 논문, 2013, 140쪽.

33) 전덕재, 앞의 논문, 2001, 68~79쪽.

설치 기사는 실직 또는 하슬라에 위치한 정군단의 주둔지를 비열홀로 移置시킨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신라의 東北境이 하슬라 근처에서 비열홀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지하듯이 신라는 550년대 전반에 한강 유역에 진출하였다. 아마도 한강유역을 차지한 후, 신라는 곧이어 556년 7월에 동해안 방향으로 北上하여 비열홀까지 영토를 확장한 것으로 이해된다.

진흥왕대에 신라가 동해안 방향으로 어디까지 진출하였는가를 알려주는 자료가 바로 진흥왕순수비 마운령비와 황초령비이다. 두 비의 앞 부분에 ‘太昌 8년 歲次 戊子 8월 21일 癸未에 眞興太王이 管境을 巡狩하고 돌에 새겨 기록하였다’고 전한다. 태창 8년 무자는 568년(진흥왕 29)이다. 마운령비는 옛 함남 이원군 동면 사동 萬德山 福興寺의 배후에 솟아 있는 雲施山(雲霧山)의 산꼭대기에 세워져 있었다고 전해지고, 황초령비는 옛 함남 함흥군 하기천면 황초령에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두 비를 568년 8월에 신라가 함흥과 이원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하였음을 알려주는 유력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진흥왕 29년(568) 10월에 比列忽州를 폐하고 達忽州를 설치하였다고 전한다. 이것은 정군단의 주둔지를 비열홀에서 達忽(고성군 고성읍)로 移置시켰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이때 동시에 北漢山州를 폐하고, 南川州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정군단의 주둔지를 북한산(한강 이북의 서울)에서 남천(경기도 이천시)으로 옮겼음을 반영한 것이다. 신라와 고구려는 552년 무렵에 동맹을 맺었고<sup>34)</sup>, 568년을 전후한 시기에 두 나라의 관계가 변동되었음을 알려주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더구나 신라가 한강

34) 신라와 고구려가 552년 무렵에 밀약을 맺은 사실과 관련하여 노태돈, 앞의 책, 1999, 401~435쪽이 참조된다.

이북의 영토를 고구려에게 빼앗겨 정군단의 주둔지를 북한산에서 남천으로 옮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군단의 移置를 곧바로 영역의 변동과 직결시키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라가 정군단의 주둔지를 비열홀에서 달홀로 옮긴 사실을 근거로 하여 고구려가 동해안 방면으로 신라를 공격하여 비열홀과 그 이북의 함흥과 이원 일대를 차지하였다고 추정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그러면 신라가 함흥과 이원 일대를 고구려에게 빼앗긴 시기는 언제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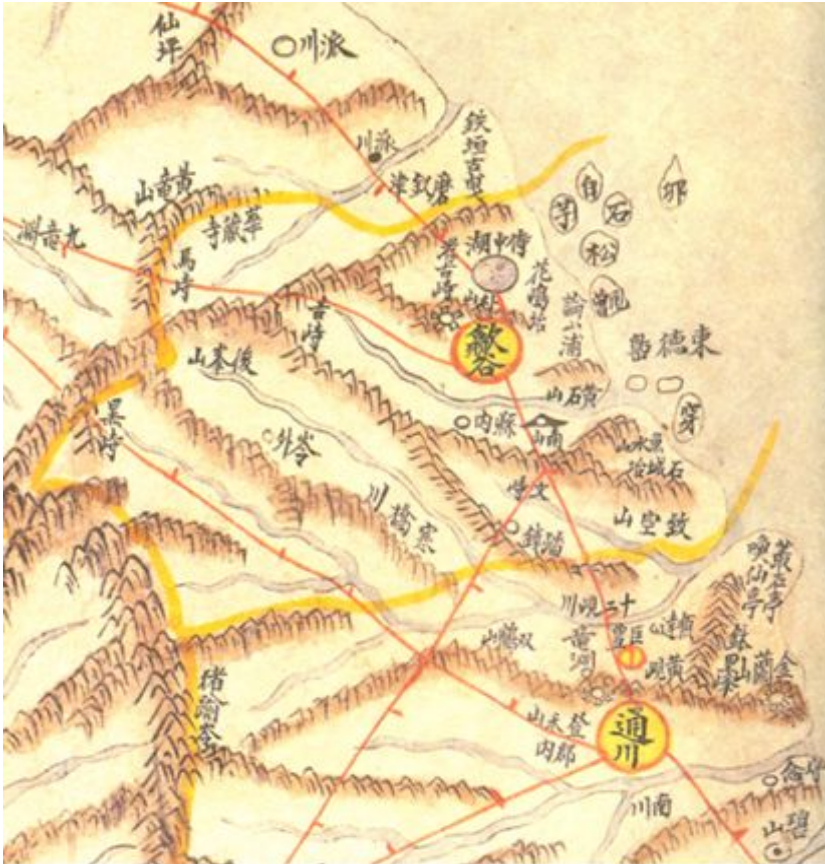
왕이 고구려가 자주 강역을 침략하는 것을 걱정해 수나라에 군사를 요청하여 고구려를 치려고 圓光에게 명령하여 乞師表를 짓게 하니, 원광이 말하기를, ‘자기 살기를 구하여 남을 멸하는 것은 승려로서의 행동이 아니나, 貧道는 대왕의 땅에서 살고 대왕의 물과 풀을 먹고 있으니, 따르지 않겠습니까?’라고 하고, 이에 (글을) 지어서 바쳤다. 2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방을 침략하여 8천 명을 사로잡아 갔다. 4월에 고구려가 牛鳴山城을 빼앗았다(『삼국사기』 신라본기제4 진평왕 30년).

위의 기록에 보이는 牛鳴山城의 위치와 관련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9 안변도호부 고적조에 翁谷縣(강원도 통천군 송전면; 북한의 통천군 장대리) 경계에 있다고 전하는 鐵垣戍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35)</sup> 牛鳴은 ‘소울(쇠울)’, 鐵垣 역시 ‘쇠울(소울)’의 訓借 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36)</sup> 牛鳴山城을 안변 동남쪽에 위치한 鐵垣戍로 비정한다면, 고구려가 안변지역을 신라로부터 빼앗은 시기는 608년(진평왕 30, 영양왕 19) 4월 무렵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3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9 安邊都護府 古跡, “鐵垣戍. 在府東派川社海口 有小石城 世稱戍城 在江原道歙谷縣境”.

36) 정구복 등, 『역주 삼국사기』 3(주석편 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532쪽.

〈그림 1〉 鐵垣戍(鐵垣古戍)와 通川(牛山城)의 위치(『東輿圖』)



550년대에 신라와 동맹을 맺었던 고구려가 서북지방에서 고구려를 위협하던 돌궐의 기세가 한풀 꺾이자, 590년 무렵부터 과거에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 유역을 회복하기 위해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영양왕이 즉위한 590년 무렵에 溫達이 군사를 이끌고 한강 유역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라를 공격하였다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sup>37)</sup> 603년(진평왕 25) 8월에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공격하였다가 신라군의 반격을 받고 물러났다. 아울러 위의 기록을 통하여

608년 무렵에도 고구려가 자주 신라 강역을 침략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비록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공격하여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마침내 608년 4월에 동해안 방면으로 신라를 공격하여 함흥과 이원 일대뿐만 아니라 안변지역을 빼앗은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제5 선덕왕 8년(639) 봄 2월조에 ‘何瑟羅州를 北小京으로 삼고 사찬 眞珠에게 명하고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고 전하고, 그리고 태종무열왕 5년(658) 3월조에 ‘何瑟羅의 땅이 말갈과 맞닿아 있으므로 사람들이 편안치 못하다고 여겨 小京을 폐지하여 州를 삼고 도독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또 悉直을 北鎭으로 삼았다’고 전한다. 일단 후자의 기록을 통하여 658년 무렵에 하슬라가 신라의 北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태종무열왕 2년(655) 정월에 고구려가 말갈·백제와 함께 군사를 연합하여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략하여 33성을 탈취하였다는 기록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전한다. 이때 말갈, 즉 동예가 동해안 방면에서 신라 북방을 공격하여 하슬라 근처까지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국사기』 잡지제9 직관(하) 무관조에 ‘河西停은 본래 悉直停이었다. 태종왕 5년에 실직정을 혁파하고 하서정을 두었다’고 전한다. 태종무열왕 5년(658)에 북소경을 폐지하고, 州를 설치함과 동시에 정군단을 실직에서 河西(何瑟羅)로 옮겼음을 알려준다. 이때 신라는 고구려로부터 동해안지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실직에도 군사기지인 北鎭을 설치하여 군대를 주둔시켰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중고기 기록에 전하는 州의 置廢記事는 6정군단의 치폐를 반영한 것임을 염두에 둔다면, 何瑟羅州를 폐지하고, 하슬라를 北小京

37) 『삼국사기』 열전제5 온달조에 陽岡王(陽原王)이 즉위하자, 온달이 한강 유역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라를 공격하였다가 사망하였다고 전한다. 그런데 온달은 양원왕의 아들인 平原王 때에 활동한 인물이므로 양강왕은 영양왕의 착오로 봄이 옳다[정구복 등, 『역주 삼국사기』 4(주석편 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751~752쪽].

으로 삼은 선덕여왕 8년(639) 2월 이전 시기에는 정군단이 하슬라에 주둔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38)</sup> 이어서 568년(진흥왕 29) 10월부터 639년 2월 사이에 정군단을 달홀에서 하슬라로 移置시켰음을 추론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시기는 고구려에게 우명산성을 빼앗긴 608년 4월 무렵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이때 고구려가 하슬라 이북의 어느 지역까지 남진하였을 것이나 그곳이 어디인가 정확하게 考究하기 어렵다.

태종무열왕 5년(658) 3월에 北小京이 말갈과 맞닿아 있어 사람들이 편안치 못하다고 하여 그것을 폐지하고 州를 설치한 것에서 역설적으로 하슬라에 북소경을 설치한 639년 2월에는 그곳이 고구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시 신라의 東北境은 어디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VI-① (貞觀) 17년(643)에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고구려와 백제가 여러 차례 번갈아 공격하여 수십 성을 잃었고, 두 나라의 군대가 연합하여 臣(신라)의 社稷을 없애려고 합니다. 삼가 陪臣을 보내어 大國에 보고를 하오니, 약간의 군사로나마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上言하였다(『舊唐書』新羅傳).

VI-② 또한 卑列의 城(卑列之城)은 본래 신라 땅이었는데, 고구려가 공격하여 빼앗은 지 30여 년 만에 (신라가) 다시 이 땅을 되찾아 백성을 옮겨 살게 하고 관리를 두어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나라가) 이 城을 가져다 다시 고구려에 되돌려 주었습니다(『삼국사기』신라본기제7 문무왕 11년 7월).

38) 658년 3월 북소경을 폐지할 때, 실직정을 하슬라정으로 개칭한 것을 통하여 639년 2월 하슬라주를 폐지하고 하슬라지역을 북소경으로 삼을 때에 정군단을 실직으로 移置시켰음을 유추할 수 있다.

Ⅵ-②는 671년에 唐의 將帥 薛仁貴가 문무왕에게 편지를 보내자, 문무왕이 거기에 대하여 答信한 내용 가운데 일부이다. 뒤에서 자세하게 살필 예정이지만,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비열성을 되찾은 것은 666년 12월이었다. 따라서 고구려가 비열성을 신라로부터 빼앗은 시기는 630년대 후반이었던 셈이 된다. 그러나 『삼국사기』를 비롯한 여러 史書에서 630년대 후반에 고구려가 동해안 방면에서 신라를 침략하였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고구려가 비열성을 차지한 시기와 관련하여 Ⅵ-①의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42년에 백제가 신라의 서쪽 변경 40여 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대야성을 함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연합하여 당항성을 공격하려 하였다. 아마도 이때 고구려가 동해안 방면으로 진출하여 비열성을 빼앗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무왕은 答薛仁貴書에서 이를 두고 고구려가 마치 30여 년 전에 비열의 성을 빼앗은 것처럼 언급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처럼 639년 2월에 비열성이 분명히 신라의 영토였기 때문에 하슬라를 北小京으로 삼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642년에 신라가 비열성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소경을 폐지하지 않은 것에서 신라의 북경은 하슬라에서 비열성 사이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608년(진평왕 30) 무렵에 고구려가 안변지역을 신라로부터 빼앗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때부터 639년 사이에 다시 신라가 동해안지역으로 북상하여 비열홀을 차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였을까? 현재 그 시기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없다. 다만 612년 이래 고구려가 수나라와 치열한 전쟁을 치렀음을 염두에 둔다면, 신라가 동해안 방면으로 비열성까지 北上한 시기는 612년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만을 언급할 수 있을 뿐이다.

#### 4. 新羅·渤海의 境界와 그 변천

앞에서 태종무열왕 2년(655) 정월에 신라가 하슬라를 경계로 말갈(동예)과 대치하였음을 살폈다. 그런데 문무왕은 671년에 지은 薛仁貴書에서 고구려에게 빼앗겼던 卑列(比列忽)의 城을 되찾아 백성을 옮겨 살게 하고 관리를 두어 지키게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신라가 비열성을 되찾은 계기는 666년 12월 淵淨土의 신라 망명에서 찾을 수 있다.

고구려의 貴臣 淵淨土가 12城, 763戶, 3,543口를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였다. 연정토와 그의 부하 24명에게 의복과 식량, 집을 하사하고, 서울 및 州府에 안주시키고, 그 8성은 온전하였으므로 군사를 보내 지키게 하였다(『삼국사기』 신라본기제6 문무왕 6년 겨울 12월).

문무왕 6년(666) 겨울 12월에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가 12성을 들어 신라에 항복하였음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여기서 문제는 12성이 어느 곳에 위치하였는가에 관해서인데, 종래에 선덕여왕대부터 문무왕 7년(667)까지 신라와 고구려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七重城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한 정황을 주목하여 연정토가 12성을 들어 항복한 지역은 서북 국경지역이 아니라 동북지역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주목된다.<sup>39)</sup> 이에 따르면, 666년 12월 연정토가 동북지역에 위치한 12성을 들어 신라에 망명한 것을 계기로 비열성이 다시 신라의 영토로 편입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문무왕 9년(669) 여름 5월에 泉井과 比列忽, 各連 등 3郡의 백성이 굶주렸으므로 창고를 열어 진휼하였다. 신라가 666년 12월에

39) 노태돈, 앞의 책, 1999, 248~251쪽; 전덕재, 「우수주의 설치와 변천에 관한 고찰」, 『강원문화연구』 28, 2009, 99~101쪽.

천정군까지 영토로 확보하였음을 시사해준다.

신라는 666년 12월에 비열성을 되찾은 다음, 668년(문무왕 8) 봄에 비열홀주를 설치하고 파진찬 龍文을 총관으로 삼았다. 이것은 우수주를 폐지하고, 주치를 비열홀로 옮겨 비열홀주를 설치한 사실 뿐만 아니라 정군단의 주둔지를 우수에서 비열홀로 옮겼음을 반영한 것이다. 『삼국사기』 잡지제4 지리2 삭주조에 ‘문무왕 13년, 당나라 咸亨 4년(673)에 首若州를 설치하였다’라고 전한다. 그리고 잡지제9 직관(하) 무관조에 ‘牛首停은 본래 비열홀정이었는데, 문무왕 13년에 비열홀정을 혁파하고 우수정을 두었다’고 전한다. 673년에 주치를 비열홀에서 우수(수약)로 옮기고, 정군단의 주둔지도 역시 그렇게 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泉井郡을 문무왕 21년(681)에 고구려로부터 빼앗았다고 하였다. 문무왕 9년(669) 5월에 천정군에 기근이 들어 진흙한 것으로 보아 당시 천정군은 신라의 영토였음이 확실시된다. 그러면 681년에 다시 천정군을 고구려로부터 빼앗았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671년에 문무왕은 답설인귀서에서 비열의 성을 당나라가 고구려에게 넘겨주었다고 언급하였지만, 668년에 비열홀주를 설치하고, 673년에 州治를 牛首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停軍團의 주둔지 역시 비열홀에서 우수로 옮긴 정황을 감안한다면, 671년 무렵에 비열홀(비열성)을 당나라가 고구려에게 넘겨주었다고 언급한 것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sup>40)</sup> 다만 681년에 고구려로부터 천정군을 되찾은 점을 주목하건대, 671년 무렵에 당나라가 고구려에게 넘겨준 군·현은 비열홀주 예하의 천정군과 그 領縣뿐이었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40) 여기서 고구려는 당이 옛 고구려지역을 통치하기 위하여 설치한 安東都護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2〉 鐵關城, 北面川, 鎮溟縣(蒜山縣), 龍津鎮(松山縣)의 위치(『東輿圖』)



문무왕 15년(675) 9월에 신라는 買肖城戰鬪에서 李謹行이 이끄는 唐軍을 크게 격파한 다음, 安北河를 따라 關과 城을 설치하고, 또 鐵關城을 쌓았다. 41) 『삼국유사』 권제2 기이제2 문무왕법민조에 安北河邊에 鐵城을 쌓았다고 전한다. 철관성과 철성은 동일한 성일

41) 『三國史記』新羅本紀第7 文武王 15年 가을 9月, “薛仁貴以宿衛學生風訓之父金眞珠伏誅於本國 引風訓爲鄉導 來攻泉水城 我將軍文訓等逆戰勝之 斬首一千四百級 取兵船四十艘. 仁貴解圍退走 得戰馬一千匹. 二十九日 李謹行率兵二十萬 屯買肖城 我軍擊走之 得戰馬三萬三百八十四 其餘兵仗稱是. 遣使入唐貢方物. 緣安北河設關城 又築鐵關城”.

것이다. 조선시대 지리서에 鐵關山 또는 鐵關은 덕원 북쪽에 위치하였다고 전한다.<sup>42)</sup> 종래에 이를 근거로 鐵關山을 해안을 따라 안변에서 문천으로 가는 도로 좌측에 위치한 望德山으로 비정하고, 문무왕 15년에 쌓은 鐵關城 또는 鐵城을 望德山古城址(古井泉城)로 고증하였다. 아울러 망덕산 남쪽 盆地를 지나 동해로 흘러들어가는 北面川을 安北河로 비정하고, 북면천을 사이에 두고 望德山과 남북으로 마주보며 대치하고 있는 小望德山에 위치한 古城이 문무왕 15년에 안북하를 따라 설치한 關, 城과 관련이 있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sup>43)</sup> 나름대로 수공이 가는 견해로 보인다. 철관산, 즉 망덕산은 안변과 문천을 연결하는 街道에 위치한 요해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마식령을 넘고 阿虎飛嶺(阿好非嶺)을 지나 양덕, 성천, 강동을 지나 평양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였다. 신라는 675년(문무왕 15) 9월에 要害處인 망덕산에 철관성을 쌓고, 안북하, 즉 북면천변에 關과 城을 설치한 다음, 문무왕 21년(681) 정월에 沙飡 武仙으로 정예군사 3천 명을 이끌고 비열홀을 지키게 하였다. 아마도 신라는 무선이 지휘하는 3천 명의 군사를 기반으로 681년에 천정군에 진출하여 그곳과 그 領縣들을 신라의 영역으로 편제한 것으로 이해된다.

『삼국사기』 잡지제6 지리4에 賈耽의 古今郡國志에 ‘발해국의 南海府, 鴨渚府, 扶餘府, 柵城府의 4府는 모두 고구려의 옛 땅이었다. 신라 泉井郡으로부터 책성부에 이르기까지 무릇 39驛이 있었다’라고 기록하였다는 내용이 전한다. 한편 『신당서』 발해전에 ‘남쪽으로 신라와 접해 있으며, 泥河로서 경계로 하였다’고 전한다. 발해는

42) 『세종실록지리지』 宜川郡條에 ‘要害는 鐵關山이다(군의 북쪽에 있다)’고 전하고,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9 덕원도호부 고적조에 ‘古井泉城이 府 북쪽 15리에 있는데, 石築으로 되어 있으며, 둘레가 4,322尺으로서 지금은 廢하였다’, ‘鐵關은 府 북쪽 15리에 있는데, 둘레가 1,403척이다’라고 전한다.

43) 池內宏, 앞의 논문, 1929; 앞의 책, 1960, 40~45쪽.

武王代(719~737) 초반에 정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는데, 이때 발해가 함경도 동해안지역으로 진출하여 신라와 국경을 맞대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된다.<sup>44)</sup> 신라는 발해의 동해안 진출에 대응하여 성덕왕 20년(721) 가을 7월에 하슬라지역의 丁夫 2천 명을 징발하여 북쪽 국경에 長城을 쌓았다. 721년 당시 北境은 천정군이었기 때문에 長城은 거기에 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발해 책성부는 중국 길림성 琿春縣에 위치한 八連城으로, 책성부에서 신라 천정군에 이르는 도로, 이른바 新羅道가 경유하는 신라와 국경 근처에 위치한 南京南海府는 함남 북청군 북청읍에서 동남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청해토성으로 이해하고 있다.

발해의 남쪽 경계와 관련하여 『續日本紀』 권34 光仁天皇 寶龜 8년(777) 정월 계유조에 발해 사신 史都蒙 등이 南海府 吐号浦로부터 출발하여 서쪽으로 대마도 竹室津으로 향하려고 하였다고 언급한 내용이 주목된다. 종래에 ‘号’는 ‘另’의 誤字로 이해하고, 吐另浦를 都連浦로 비정한 견해가 제기되었다.<sup>45)</sup> 도련포는 현재 함남 정평군 봉대리, 호남리, 향동리, 호중리, 선덕리, 동호리, 삼도리 및 함주군과의 경계에 있는 넓은 호수, 즉 廣浦로 비정된다. 따라서 발해와 신라의 경계는 광포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발해와 신라의 국경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고증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은 泉井郡과 泥河의 위치를 정확하게 고증하는 것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종래에 천정군과 니하의 위치를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먼저 일찍이 泥河를 金津川(북한의 금진강)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제기되었고<sup>46)</sup>, 후에 泥河를 龍興江(북한의 금야강)으로 비정하는

44) 송기호,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의 발해와 신라」, 『한국사시민강좌』 5, 일조각, 1989, 48~49쪽.

45) 조병순, 「발해 남경남해부의 위치 추정에 대한 고찰」, 『서지학보』 28, 2004, 20~23쪽.

46) 池内宏, 앞의 논문, 1929; 앞의 책, 1960, 68~69쪽.

견해가 제기되었다.<sup>47)</sup> 그런데 니하의 위치 고증은 천정군의 위치 비정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지녔다. 泉井郡의 위치를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V-① 井泉郡은 본래 고구려의 泉井郡이었는데, 문무왕 21년에 빼앗았다. 경덕왕이 이름을 고치고 炭項關門을 쌓았다. 지금(고려)의 湧州이다(『삼국사기』 잡지제4 지리2 삭주).

V-② 宜州는 본래 고구려의 泉井郡(또는 於乙買라고도 한다)이다. 新羅 文武王 21년에 취하였다. 이름을 고쳐 井泉郡이라고 하였다. 高麗初에 湧州라고 칭하였고, 成宗 14년에 防禦使를 두었으며, 후에 다시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睿宗 3년에 城을 쌓았다(『高麗史』 卷58 志12 地理3 東界).

V-②에 나오는 宜州를 조선 태종 13년(1412) 癸巳에 宜川郡으로, 세종 19년(1437)에 德源郡으로 개칭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 고려 宜州가 고구려의 천정군이었다고 언급한 이래, 조선시대에 편찬된 여러 지리서에서 그대로 이를 따랐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면서 천정군=덕원설이 통설화되었다. 이에 반해 일찍이 성덕왕대에 쌓은 長城은 금진천과 용흥강 사이의 分水山脈에 위치한 것으로 이해한 다음, 정천군을 용흥강이 흐르는 永興으로 비정하고, 아마도 湧州는 和州의 오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sup>48)</sup> 그러면 두 견해 가운데 어느 것이 타당할까?

V-②에 고려초에 천정군을 湧州로 개칭하고, 성종 14년(995) 이후

47) 松井等, 앞의 논문, 1940, 422~423쪽.

이밖에 津田左右吉, 「新羅北境考」, 『滿鮮歷史地理研究』1(朝鮮歷史地理), 1913; 『津田左右吉全集』 제11권, 岩波書店, 1964, 215~217쪽에서 泥河를 안변의 南大川으로 비정하기도 하였다.

48) 池內宏, 앞의 논문, 1929; 앞의 책, 1960, 47~70쪽.

어느 시기에 용주를 宜州로 개칭하였다고 전한다. 그런데 V-①에 용주를 의주로 개칭하였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고, 고구려와 신라의 천정군은 『삼국사기』를 편찬한 인종 23년(1145) 당시 용주로 비정된다고만 언급하였을 뿐이다. 적어도 인종 23년(1145)까지 용주를 의주로 개칭하지 않았음이 확실시된다. 이러한 사실은 『高麗史』 卷 53 志7 五行1 水條에 ‘(인종) 23년 6월 갑신일에 큰 물이 나서 東界 文州와 湧州 두 주에서 산이 무너지고 물이 쏟아져 나와서 성문과 민가가 물에 잠기고 떠내려 간 것이 매우 많았다’고 전하는 기록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 이후 시기의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등의 기록에서 湧州에 관한 정보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V-②에 따르면, 인종 23년(1145) 이후에 湧州를 의주로 개칭하였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고려 인종 23년 이전의 『고려사』 기록에 의주에 관한 내용이 여럿 보인다는 점이다.

『고려사』 권12 세가12 예종 3년(1108) 3월조에 尹瓘이 또 宜州, 通泰, 平戎 등 3城을 쌓고 南界의 백성들을 이주시켰으며 새로 9개의 성을 쌓았다고 전한다. 그리고 『고려사』 권82 지36 城堡條에 ‘현종 7년(1016)에 宜州에 성을 쌓으니, 길이가 652間이고 門이 5개이다’라고 전한다. 이 기록들은 인종 23년(1145) 이전에 용주와 의주가 별도로 존재하였음을 알려주는 유력한 증거자료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른다면, 『세종실록지리지』 등에서 성종 14년 이후에 용주를 의주로 개칭하였다고 언급한 것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셈이 되는데, 그렇다면 조선인들은 왜 용주를 의주로 개칭하였다고 인식하였을까가 궁금해진다. 일단 한 가지 가능성으로서 용주가 인종 23년 이후에 의주에 합속되었을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천정군의 領縣 가운데 일부가 의주에 합속되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천정군, 즉 용주를 의주로 개칭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경우이다.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사실에 부합할까?

泉井郡의 영현으로 買尸達縣(蒜山縣), 夫斯達縣(松山縣), 東虛縣(幽居縣)이 있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는 3현의 위치를 알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김정호는 『대동지지』에서 산산현은 고려의 鎭溟縣, 송산현은 고려의 龍津鎭으로 비정된다고 언급하였다. 진명현은 圓山縣 또는 水江縣이라고 불렀는데, 현재 북한의 강원도 원산시 내 원산동(옛 함남 원산시 두산동 일대)으로 비정되고 있다. 용진진은 북한의 강원도 문천시 송탄동·고암노동자구(옛 함남 문천군 북서면 송탄리 일대)로, 마지막으로 동허현은 북한의 강원도 문천시 부거리(옛 함남 문천군 문천면 부거리)로 고증된다.<sup>49)</sup> 『고려사』 지리지에서 文州(문천시)를 성종 8년 이후에 宜州에 合屬시켰다가 충목왕 원년에 다시 복구하였고, 용진진을 목종 9년 이후에 문주에 合속시켰다가 우왕 5년에 다시 복구하여 현령을 두었으며, 진명현을 현종 9년 이후에 의주에 合속시켰다고 밝혔다. 이처럼 천정군의 영현이 대체로 宜州에 合속되었거나 한때 合속되었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천정군, 즉 湧州도 宜州에 合속되었고,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용주를 성종 14년 이후에 의주로 개칭하였다고 인식하기에 이르렀지 않았을까 한다.

池內宏은 일찍이 湧州는 和州의 誤記로 추정하였는데, 인종 23년 이전 시기의 『고려사』 기록에 용주와 화주가 병존하였음을 알려주는 내용이 발견되는 점<sup>50)</sup>, 조선시대 지리서에 용주를 후에 화주가 아니라 의주로 개칭하였다고 전하는 점을 감안하건대, 이 견해를

49) 정구복 등, 『역주 삼국사기』 4(주석편 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284~285쪽.

50) 『고려사』 지리지에 고구려 長嶺鎭을 고려 초에 和州로 개칭하였다고 전한다. 현종 1년 5월 갑신일에 尙書左司郎中 河拱辰과 和州防禦郎中 柳宗을 遠島로 유배 보냈다고 전하는 기록이 世家에 전하는 和州 관련 기록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한편 『고려사』 권80 지34 식화3 水旱疫癘賑貸之制條에 (선종) 11년 2월 東路의 高州, 和州, 文州, 湧州, 定州, 長州, 登州, 交州 등 8주와 宣德, 元興, 寧仁, 長平, 永興, 龍津 등 6진에서 작년에 수재와 한재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굶주렸다'는 기록이 전하는데, 화주와 문주, 그리고 용주가 인종 23년 이전에 병존하였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자료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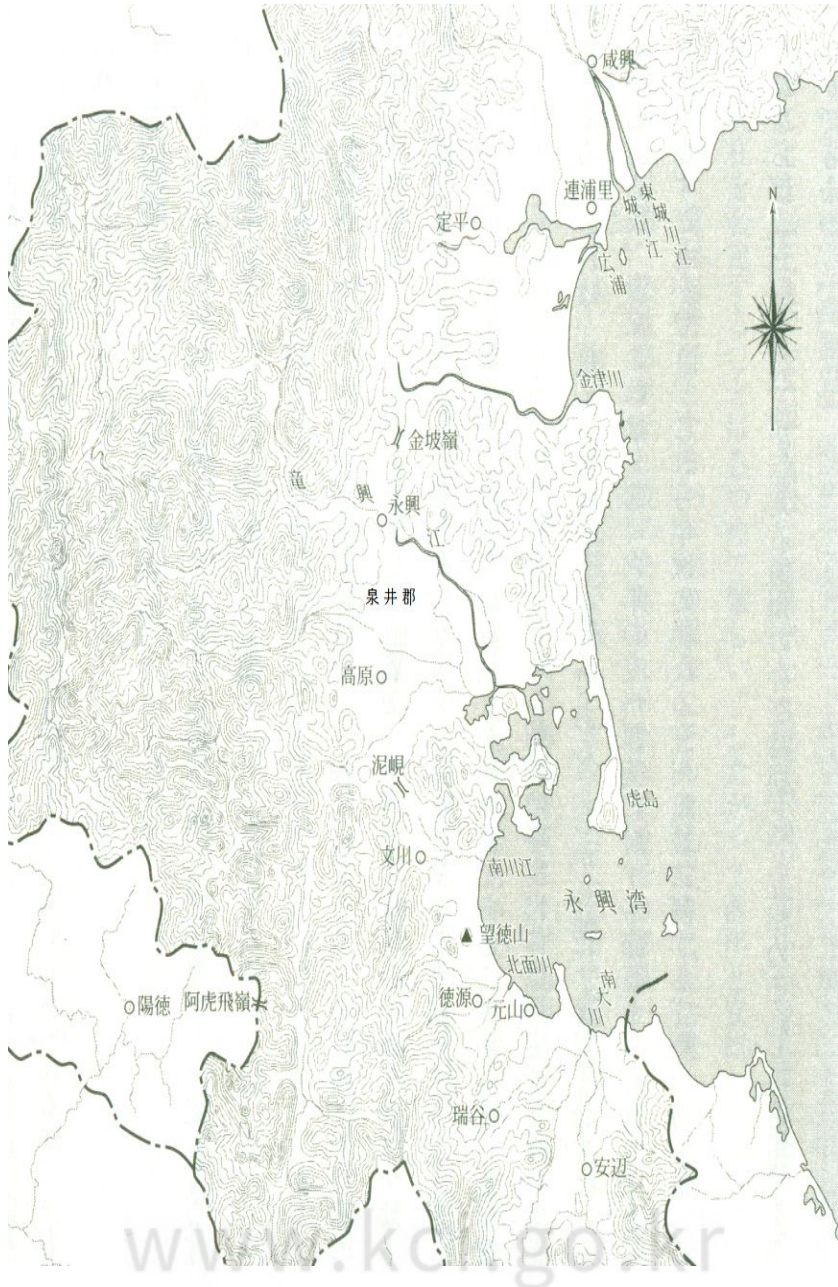
그대로 수궁하기 곤란하다. 근래에 고려 인종 23년 이전에 宜州를 설치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湧州를 宜州로 改稱하였다고 전하는 조선시대 지리서의 기록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湧州를 和州의 誤記로 보는 견해도 수궁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용주, 즉 천정군의 위치를 새롭게 비정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르면, 金津川을 泥河로, 성덕왕대 쌓은 장성을 용흥강과 금진천 사이의 분수산맥에 위치한 古長城으로 비정한 池內宏의 견해를 수용한다면, 천정군이 所在한 하나의 후보지로서 일단 영흥 주변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만약에 성덕왕대에 쌓은 長城, 즉 炭項關門을 마식령에서 발원하여 문천시 고암동, 문평동에서 동해의 월산만으로 유입되는 남천강 지류의 분수산맥에 위치한 泥峴에 비정할 수 있다면, 천정군=용주는 그 이남에 위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과 아울러 문주와 용주가 병존하였음을 고려하건대, 천정군이 소재한 또 다른 후보지로서 문천 주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sup>51)</sup> 매우 흥미로운 견해이나 구체적으로 천정군의 위치를 고증하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천정군의 위치를 고증하고자 할 때, 일단 그것이 고려초에 湧州로 개칭되었다는 점, 湧州와 宜州(덕원), 文州(문천), 和州(영흥)는 동시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용주를 의주, 문주, 화주와 연결시키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泥河를 금진천 또는 용흥강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고 언급하였다. 泥河의 비정과 관련하여 용흥강(북한의 금야강)을 고려시대에 橫江이라고 불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52)</sup> 橫江은 橫川으로 치환할 수 있는데,

51) 赤羽目匡由著·이유진 옮김, 「신라동북경에서의 신라와 발해의 교섭에 대하여」, 『고구려연구』31, 2008, 257~264쪽; 赤羽目匡由, 「新羅泉井(井泉)郡の位置について」, 『渤海王國の政治と社會』, 吉川弘文館, 2011a.

52) 『고려사』 지리지에 和州에 橫江이 있다고 전하고, 『세종실록지리지』 영흥대도호부조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8 함경도 영흥대도호부 산천조에서는 용흥강의 옛 이름이 橫江이라고 전한다.

〈그림 3〉 龍興江과 金津川, 廣浦(都連浦), 泉井郡의 위치



『삼국사기』 지리지에 橫川縣이 본래 고구려의 於斯買였다고 전하는 점이 유의된다. 종래에 ‘橫’의 訓借인 ‘엇’을 주목하여 橫川, 즉 於斯買를 ‘엇딕’로 독음하기도 하였으나<sup>53)</sup> 근래에 ‘橫’을 ‘서로 걸쳐서’, ‘서로 비껴서’ 등의 뜻을 지닌 ‘넛(눗)’의 訓借로 이해하여 於斯買를 ‘넛딕(눗딕)’로 訓讀한 견해가 제기되었다.<sup>54)</sup> 아울러 천정군의 옛 이름인 於乙買 역시 ‘엇딕’ 또는 ‘얼딕’가 아니라<sup>55)</sup> ‘늘딕’ 또는 ‘느르딕(느리딕)’, ‘늘딕(於<느 또는 늘>+乙<리>+買<딕>)’로 읽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sup>56)</sup> 이러한 견해들을 존중할 때, 泥河 또는 泥川을 ‘니딕’ 또는 ‘니너’로 독음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늘딕 또는 늘미로 읽을 수 있는 於乙買 및 넛딕(눗딕)로 읽을 수 있는 於斯買와<sup>57)</sup> ‘니딕(닐딕)’ 또는 ‘니너(닐너)’로 읽을 수 있는 泥河(泥川)가 음운상으로 相通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발해 남쪽 경계가 都連浦, 즉 현재의 廣浦 근처였는데, 그곳과 금진천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고, 於乙買(泉井郡), 於斯買(橫江, 橫川)와 泥河(泥川)가 음운상으로 서로 통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지 않았음을 두루 감안하건대, 泥河를 용흥강으로 비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천정군의 위치를 정확하게 고증할 수 있는 단서는

53) 도수희, 『백제어연구』Ⅱ, 백제문화개발원, 1989, 47쪽; 박병채, 『고대국어학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0, 180쪽.

54) 김종택, 「於乙買(串)를 다시 해독함」, 『지명학』 7, 2002, 93~94쪽.  
한편 천소영, 「지명에 쓰인 ‘느르’계 어사에 대하여」, 『구결연구』1, 1996, 278쪽에서는 於斯買를 ‘눗딕’로 읽을 수 있다고 하였다.

55) 도수희, 앞의 책, 1989; 박병채, 앞의 책, 1990; 유창균, 『한국고대한자음연구』, 계명대 출판부, 1980에서는 於乙買를 ‘엇(얼)딕’로 읽었다.

56) 김종택, 앞의 논문, 2002에서는 於乙買를 ‘늘미’, 천소영, 앞의 논문, 1996, 276쪽에서는 ‘느르미(느리미)’, 황금연, 「옛 지명 형태소 ‘於乙-’에 대한 통시적 고찰」, 『한글』 254, 2001에서는 ‘늘미(於<느 또는 늘>+乙<리>+買<딕>)’로 읽을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57) 水城郡이 본래 고구려의 買忽郡, 沙川縣이 본래 高句麗 內乙買縣, 伊川縣이 본래 高句麗 伊珍買縣이었고, 水谷城縣을 또는 買旦忽, 水入縣을 또는 買伊縣, 南川縣을 또는 南買, 述川郡을 省知買, 深川縣을 伏斯買, 狹川郡을 也尸買라고도 불렀던 것에서 지명 어미 買(미)가 삼국시대에 ‘水’와 ‘川’을 뜻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그것이 신라의 최북단, 즉 발해와의 국경에 위치한 점과 ‘於乙買’라는 지명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려시대에 湧州와 和州는 분명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북한의 금야읍(옛 영흥읍)을 천정군의 郡治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필자는 ‘泥河’와 ‘於乙買’가 音韻上으로 서로 통할 수 있는 것에서 천정군의 군치가 용흥강 유역에 위치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는 점 및 천정군이 신라의 최북단에 위치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그 郡治를 오늘날 북한의 금야읍과 고원읍 사이의 어느 곳으로 비정하는 견해를 제기해 두고자 한다(〈그림 3〉 참조).<sup>58)</sup> 아마도 신라의 천정군은 오늘날 북한 금야군과 고원군, 요덕읍의 영역을 망라하는 영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에 필자의 이러한 추정에 커다란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성덕왕대에 쌓은 長城은 池內宏의 견해처럼 금진천과 용흥강 사이의 분수산맥에 위치한, 즉 영흥군(북한의 금야군)과 정평군 사이에 위치한 古長城으로 비정되고, 경덕왕대에 설치한 炭項關門은 그 분수산맥에 위치한, 오늘날 함남 금야군 금사리 서부에 위치한 金陂嶺(金彼嶺; 246m)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sup>59)</sup> 결과적으로 8세기 전·중반 신라와 발해는 금진천과 용흥강 사이를 두고 대치한 셈이 된다.

58) 〈그림 3〉은 赤羽目匡由, 앞의 책, 2011, 191쪽의 圖11 新羅·渤海境界地域圖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

59) 『신당서』 신라전에 ‘그(신라) 나라의 산은 수십 리씩 연결되어 있는데, 입구의 골짜기에 튼튼한 鐵闔(쇠문짝)을 만들어 달고, 關門이라고 부르며, 신라는 항상 이곳에 弩士 수천 명을 주둔시켰다’고 전한다. 炭項關門에 수천 명의 군사를 주둔시켰음을 알려주는 자료로서 주목된다.

〈그림 4〉 古長城과 金陂院(金彼院<金陂嶺>)의 위치(『東輿圖』)



그런데 9세기 후반에 이르러 신라의 東北境에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려주는 자료가 전한다.

北鎮에서 아뢰기를, ‘狄國人이 鎮에 들어와 나무조각을 나무에 걸어놓고 돌아갔습니다’라고 하고는 그것을 가져다 바쳤다. 그 나무조각에는

15자가 쓰여 있었는데, 이르기를 ‘寶露國과 黑水國 사람들이 함께 신라국과 화친을 통하겠다’고 하였다(『삼국사기』 신라본기제11 헌강왕 12년 봄).

위의 기록에 나오는 寶露國과 黑水國은 흑수말갈부족과 관련이 깊다.<sup>60)</sup> 최치원이 지은 「讓位表」에 진성여왕이 왕위를 계승한 이후에 처음에 黑水가 강토를 침범하며 독기를 내뿜었고, 다음에는 綠林이 때를 지어 경쟁적으로 광기를 부렸다는 내용이 보인다.<sup>61)</sup> 9세기 후반에 신라의 동북지방에 흑수말갈이 거주하였음을 알려주는 유력한 증거 자료이다. 이밖에 흑수뿐만 아니라 말갈의 일파인 達姑, 鐵勒과 관계된 기록이 『삼국사기』와 『고려사』 태조세가에 여럿 전하는데, 이들은 8세기 중엽에 발해에 의하여 원 거주지역에서 신라의 동북지역으로 遷徙된 존재로서 9세기 후반 발해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활동하였다고 알려졌다.<sup>62)</sup> 일찍이 池內宏이 寶露國을 『세종실록지리지』 함길도 안변도호부조에 나오는 奉龍驛(또는 寶龍驛)과 연결시켜 안변지역에 거주한 말갈 부족을 지칭한다고 주장한 이래<sup>63)</sup>, 현재까지도 널리 수용되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헌강왕 12년(886) 北鎭의 위치를 정확하게 고구하기 곤란하지만<sup>64)</sup>, 신라의 東北境은 안변 근처였다고 정리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60) 寶露國은 흑수말갈의 추장인 倪屬利稽가 당으로부터 수여받은 勃利州刺史의 ‘勃利’와 상통한다고 이해되고 있다(赤羽目匡由, 「渤海·新羅接地域における黑水·鐵勒·達姑の諸族の存在樣態」『渤海王國の政治と社會』, 吉川弘文館, 2011b, 150쪽).

61) 『東文選』 卷43 表箋 讓位表<崔致遠>, “臣某言 --- 而及愚臣繼守 諸患併臻 始則黑水侵疆 曾噴毒液 次乃綠林成黨 競簸狂氛 --- 謹因當國賀正使 某官入朝 附表陳讓以聞”.

62) 여러 말갈족과 관련된 기록들과 그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赤羽目匡由, 위의 논문이 참조된다.

63) 池內宏, 앞의 논문, 1929; 앞의 책, 1960, 56쪽.

64) 675년 무렵에 北鎭은 철관산에 위치하였고, 경덕왕대에 탄항관문을 설치하면서 북진이 이곳으로 移置되었으며, 9세기 전반 이후에 말갈 부족이 남하하면서 그것을 안변 또는 안변 이남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짐작된다.

것이다.

한편 『고려사』 권82 지36 병2 鎭戍條에 ‘태조 3년 3월에 북계 鵲巖城이 자주 北狄의 침략을 받으므로 庾黔弼에게 명하여 開定軍 3천 명을 이끌고 골암에 이르러 東山에 큰 성을 쌓고 거처하게 하니, 북방이 평안하게 되었다’고 전하는 기록이 주목을 끈다. 여기서 태조 3년(920)에 골암성이 고려의 북변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sup>65)</sup>, 골암성은 함경남도 안변군 新高山面 신대리(북한의 강원도 고산군 고산읍)에 위치한 山城으로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66)</sup> 한편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4년 2월 임신조에 ‘達姑狄 171인이 신라를 침략하러 가는 도중에 登州(안변)를 통과하니, 장군 堅權이 이를 가로막아 크게 격파하여 말 한 필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신라왕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여 사신을 보내 사의를 표하였다’고 전하며, 동일한 내용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제12 경명왕 5년(921) 2월조에도 보인다. 이 기록은 9세기 후반부터 921년까지 신라의 북경이 登州, 즉 안변이었음을 알려주는 자료로서 유의된다.

이상에서 9세기 후반 이래 신라의 북변이 안변이었음을 살폈는데, 그러면 발해의 지배하에 있었던 여러 말갈족이 천정군지역을 차지하고, 안변지역까지 진출한 시기는 언제였을까? 신라가 헌덕왕 4년(812) 가을 9월에 급찬 崇正을 北國, 즉 渤海에 사신으로 파견하였고, 그 이후에 신라가 발해에 사신을 파견하였음을 알려주는 사료는 찾을 수 없다. 이때 승정은 신라도를 경유하여 발해로 향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에 당시 신라의 북경은 여전히 천정군이었을

65) 『高麗史』 卷92 列傳5 王順式附尹瑄條에 ‘尹瑄은 鹽州 사람인데, 사람됨이 침착, 용감하고 병법에 정통하였다. --- 鵲巖城을 근거지로 삼고, 黑水의 미개인들을 불러 들여 오랫동안 邊郡에 해를 끼쳤다. 태조가 즉위하자, 부하들을 거느리고 귀순하여 왔으므로 北邊이 편안하게 되었다’라고 전하는데, 이를 통해서도 고려 태조대 동북경이 골암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66) 池內宏, 앞의 논문, 1929; 앞의 책, 1960, 57~58쪽에서 처음 골암성을 신대리산성으로 비정한 이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에 동조하였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812년 이후부터 886년 사이에 발해 지배 하의 말갈족들이 천정군을 차지하고, 안변지역까지 南進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 그 시기를 정확하게 考究할 수 있는 자료가 不備하기 때문에 추후의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sup>67)</sup> 다만 836년 흥덕왕 사후에 치열한 왕위계승분쟁이 전개되었음을 염두에 둔다면, 말갈의 여러 부족이 천정군지역을 차지하고, 안변지역까지 진출한 시기는 830년대 후반 이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하여 두고자 한다.

## 5. 맺음말

이상 본문에서 3세기 후반부터 신라 말까지 신라의 동북 국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고찰하였다. 본문에서 살핀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3세기 후반에 斯盧國, 즉 신라가 동해안지역으로 진출하여 大關嶺에 木柵 등을 설치하고 군사를 주둔시켜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던 東濊와 대치하였고, 이후부터 390년대까지 신라의 東北境은 悉直 또는 何瑟羅(강릉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400년에 고구려 廣開土王이 步騎 5만을 보내 신라 변방을 침략한 왜군을 물리치게 하였는데, 이때 고구려가 포항시 북구 청하면과 그 이북의 경북 동해안지역을 영토로 편입하여 450년 (눌지마립간 34)까지 지배한 것으로 이해된다.

450년 무렵에 신라가 고구려를 공격하여 실직 또는 하슬라 이남의 동해안지역을 고구려로부터 빼앗고, 475년에서 481년 사이에

67) 赤羽目匡由, 앞의 논문, 2011b, 180쪽에서 9세기 전반 이래 신라의 쇠퇴에 수반하여 동북경계에서 긴장이 이완되고, 아마도 그러한 틈을 타서 黑水, 達姑, 鐵勒 등의 말갈 부족이 점진적으로 안변지역까지 진출하였다고 주장하여 참조된다.

比列城(안변)까지 북상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고구려가 497년(소지마립간 19)에 동해안 방면에서 신라를 공격하여 比列城과 牛山城(강원도 통천군)을 함락시키고 悉直 또는 何瑟羅 근처까지 南進하였다. 신라는 550년대 전반에 한강 유역을 차지한 다음, 이어 556년(진흥왕 17) 7월에 동해안 방면으로 比列忽(比列城)에 진출하고, 그로부터 568년(진흥왕 29) 8월 사이에 함흥과 이원 일대까지 北上하였다. 고구려는 590년 무렵부터 신라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여 마침내 608년(진평왕 30) 4월에 함흥·이원 일대와 안변지역을 되찾는데 성공하였으나 612년 이후부터 642년(선덕여왕 11) 사이에 다시 신라에게 비열성을 빼앗겼다가 642년 무렵에 되찾았고, 655년(태종무열왕 2) 정월에 말갈(동예)과 함께 신라를 강하게 압박하며 하슬라 근처까지 진출하였다.

신라는 666년(문무왕 6) 12월 연정토의 망명을 계기로 비열홀과 천정군을 다시 영토로 편입하였고, 668년 봄에 比列忽州를 설치한 다음, 거기에 停軍團을 주둔시켰다. 669년부터 671년 이전 어느 시기에 당나라가 천정군을 고구려(안동도호부)에 넘겨준 것으로 확인되며, 신라는 673년(문무왕 13)에 비열홀주를 폐지하고 牛首州(강원도 춘천시)를 설치하면서 정군단의 주둔지를 비열홀에서 우수로 옮겼다. 이후 675년 9월에 덕원의 북면천으로 비정되는 安北河를 따라 關과 城을 설치하고, 덕원 북쪽의 요해처인 望德山에 鐵關城을 쌓았으며, 681년(문무왕 21) 정월에 사찬 武仙으로 정예군사 3천 명을 이끌고 비열홀을 지키게 하였다. 이해에 신라는 무선이 지휘한 3천 명의 군사를 기반으로 천정군으로 진출하여 그곳과 그 領縣들을 다시 신라의 영역으로 편제한 것으로 이해된다.

발해는 武王代 초반에 한반도 동북지방으로 진출하여 비로소 신라와 국경을 맞댔는데, 당시 두 나라의 국경은 泉井郡과 泥河였다. 천정군(溇州)의 군치는 옛 영흥읍(오늘날의 금야읍)과 고원읍 사이의

어느 곳으로 비정되고, 泥河는 영흥을 가로질러 흐르는 龍興江(북한의 금야강)으로 추정된다. 신라는 721년(성덕왕 20)에 발해의 南進에 대비하여 옛 영흥군(금야군)과 정평군의 경계에 長城을 쌓았으며, 경덕왕대에 長城의 要地에 해당하는 金陂嶺에 炭項關門을 설치하고, 거기에 수천 명의 군사를 주둔시켰다. 이후 9세기 전반에서 886년(헌강왕 12) 사이에 발해의 지배를 받았던 黑水와 達姑, 鐵勒 등의 말갈 부족이 점진적으로 남하하여 천정군과 그 영현을 차지하고 안변을 경계로 하여 신라와 대치하였음이 확인된다. 신라 경덕왕대에 泉井郡을 井泉郡으로, 고려초에 井泉郡(泉井郡)을 湧州로 개칭하였고, 인종 23년(1145) 이후에 그 영역이 和州(영흥) 또는 文州(문천), 高州(고원) 등에 合屬되면서 湧州는 폐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투고일 : 2014. 4. 1, 심사수정일 : 2014. 5. 14, 게재확정일 : 2014. 5. 20)

주제어 : 新羅 東北境, 何瑟羅, 比列城(比列忽), 牛山城, 泉井郡, 泥河, 鐵關城

<ABSTRACT>

## A study on the Northeastern border and it's changes in Silla

Jeon, Deog-jae

This paper examined how the Northeastern border of Silla dynasty changed over the passage of time. The northeastern border of Silla was near the Haseula(Gangneung City) from the late 3rd century to 390s. In 400 AD, Goguryeo dynasty advanced southwards and incorporated the East Sea coastal area of the Gyeongbuk Province and ruled it until 450s. In nearly 450 AD, Silla attacked Goguryeo, and advanced to the Haseula(Gangneung City). Silla continuously went to the north to the Anbyeon between 475 and 481 AD, but lost the Eastern coastal area in north of the Haseula by Goguryeo in 497 AD. After Silla occupied the Han river area in 550s, Silla took over the Biyeolseong Fortress(Anbyeon) to the eastern coast in 556 AD and advanced to the Hamheung and Iweon area. Silla lost the east coastal region of the north of Anbyeon in 608 by Goguryeo. Silla had it back in 612 but Goguryeo reoccupied it in 642 year. Silla conquered the Biyeolhol area(Anbyeon) on December of 666 and incorporated the Cheonjeon-gun into their territory. Balhae advanced to the Northeastern Korean province and confronted Silla with the border of the Cheonjeon-gun and Niha river in the early era of King Mu' s reign. The Center of the Cheonjeon-gun was somewhere between the Geumya-eup and Goweon-eup, so Niha river is estimated to be located in the Yongheung river. Thereafter between the early 9th century to 886 AD, the Malgal tribes had advanced southwards gradually, and took the Cheonjeon-gun and Hyeons that

was under control of the Cheonjeon-gun, confronted Silla with the border of the Anbyeon.

Key Words : Silla's northeastern border, Haseula, Biyeolseong  
Fortress(Biyeolhol), Usan Fortress, Cheonjeong-gun, Niha river,  
Cheolguanseong Fortress

